

농업인들의 업무상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도 - 질적연구방법을 토대로

서애림^{1,2)}, 김지연³⁾, 김보경^{1,2)}, 이경예^{1,2)}, 박기수^{1,2)}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건강과학연구원¹⁾,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²⁾,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³⁾

Awareness of the Prevention of Work-Related Diseases among Farmers -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e-Rim Seo^{1,2)}, Ji-Youn Kim³⁾, Bokyoung Kim^{1,2)}, Gyeong-Ye Lee^{1,2)}, Ki-Soo Park^{1,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¹⁾,
Center for Farmer's Safety and Healt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²⁾,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inju Health College³⁾*

= Abstract =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work-related disease prevention of farmers.

Method: As a research method, a qualitativ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in 18 participants.

Results: Prevention and management services for work-related diseases of farmers mostly are based on research from other fields and so are not highly effective because their content is not relevant to agricultural work. It has been suggested that such program designers be required to have some appropriate related knowledge, and that incentives and a certification system for participation in such education be established.

To analyze work-related diseases of farmers, fields of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created. They demanded the designation of hospitals and the actualization of compensation for farmers' safety insurance.

The work-related diseases to address were include musculoskeletal diseases, pesticide poisoning-related diseases (cardiovascular disease, respiratory disease), psychiatric diseases such as depression, and allergic diseases. However, this must have been the result of the harmful factors they felt during agricultural work. And for farmer patients diagnosed with work-related diseases, it was said to strengthen farmer safety insurance.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ly and health effects of agricultural work,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manage work-related diseases of farmers.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barriers of farm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Key words: Farmers, work-related disease, awareness, qualitative research

* Received November 18, 2022; Revised Novem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29, 2022.

* Corresponding author: 박기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우: 52727)

Ki Soo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16beon-gil 15 Jinjudaero, Jinju, Gyeongsangnam-do, 52727, Korea

Tel: +82-55-772-8095, Fax: +82-55-772-8099, E-mail: parkks@gnu.ac.kr

* 연구비 출처: 이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PJ016999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서론

우리나라 농가 수는 2021년 12월 기준 103만 1천 가구, 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농가 수는 10.4%, 농가인구는 23.9% 감소했다[1].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 비율이 77.3%이고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이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46.8%에 이르는데, 같은 시기 전국 고령화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율(0.81)은 전체 산업 평균(0.57)보다 약 1.4배가 높다[2]. 특히 농작업 안전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자영 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하여 피부질환,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단일 유해인자가 발병 원인이 되는 경우와 복합 유해인자가 발병 원인이 되는 경우는 직업성질환으로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으나 직업적인 유해인자와 비직업적인 인자가 함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작업 관련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3].

농업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인의 안전 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작업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농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산업과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문제를 제기한다 [4,5]. 농업인의 강력한 문화 및 신념 체계[6], 사회경제적 문제, 수많은 고립된 작업, 특수 위험 인구, 작업 환경의 고유한 위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도전적인 과제이면서 또한 이러한 도전 과제는 농작업의 다양한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독립 가족 농장은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소규모 가족 노동 기반이 대부분으로 경영과 노동이 미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농작업은 항상 개별 농업인에게 경제적인 도전적인 과제인데, 농작업 시 업무상 재해 감소를 요구받아야 하지만, 오래되고 종종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고, 무급 가족 노동에 의존하고, 안전 및 건강 프로그램에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할당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7]. 농작업 특히, 농촌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은 예방에 대한 접근 제한을 만든다. 농업인들은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들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8].

지금까지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많은 국가사업이 있었지만, 농업인에게서 예방사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의 면담을 통해 농작업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이후 농작업 예방사업을 개발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 맞춤형 예방교육과 농업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유는 농업인들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중심의 양적 접근보다는 이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는 2022년 8월~9월 기간 동안 총 3회 진행하였고, 참여대상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농업인 단체 소속 18명이었다. 1회차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소속의 농업인 6명, 2회차는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소속 5명, 3회차는

4-H 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회 소속의 농업인 7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농업인들이다. 참여자들은 면접 참여의 답례로 소정의 감사비를 지급받았다.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다(승인 번호 IRB GIRB-A22-NY-0064).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연구로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 가이드를 토대로 대상자의 경험, 인식, 의견, 감정, 지식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8]. 포커스 그룹은 특성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개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단의 생각이나 동적 작용 등 그룹 효과를 거둘 수 있다[9,10].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고,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 개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받은 사업 내용, 농업인 업무상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 지원 분야, 농업인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 대상 질병(증상) 중 우선순위,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의 주관기관 등 질문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서로 마주보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의 일반사항, 농업 종사 기간, 재해 경험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3그룹으로 진행하였고 각 그룹에는 6명~7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의 진행시간은 50분~7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에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녹음 실시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중재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인터뷰를 하였다. 대상자들이 각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자들이 인터뷰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며 진행하였고, 인터뷰 과정은 녹음하고 주요 내용은 기록을 병행하며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의 필사본과 녹음본을 대조하고 반복하여 들으며 필사본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같은 내용을 범주화하여 점차 상위 코드 및 주제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연구진은 개별적으로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며 면접 당시 연구참여자의 면접 분위기와 내용의 의미를 떠올리며 자료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필사본을 다시 읽으며 각 문장과 어절을 기준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기초 코드를 부여하였다. 부여한 기초 코드를 토대로 연구진 간의 반복적인 논의를 거쳐 코드에 대한 의미를 수정하거나 통합하여 최종적인 하위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확정된 하위 코드를 기반으로 같은 주제로 판단되는 하위 코드를 범주화하면서 상위 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모든 작업은 전체 연구진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되었다. 질적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Nvivo 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모두 50.0%이었고, 평균 연령은 53.8세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8.9%로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6%, 고등학교 졸업이 50.0%,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4%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평균 동거인 수는 3.1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ender	Male	9 (50.0)
	Female	9 (50.0)
Age	30 - 39	3 (16.7)
	40 - 49	1 (5.6)
	50 - 59	8 (44.4)
	≥ 60 years	6 (33.3)
	Mean ± SD	53.8 ± 11.2
Spouse	No	2 (11.1)
	Yes	16 (88.9)
Education	≤ Middle school	1 (5.6)
	High School	9 (50.0)
	≥ College	8 (44.4)
Working years in agriculture	< 20years	8 (44.4)
	≥ 20years	10 (55.6)
	Mean ± SD	20.1 ± 10.6
Type of farm	Field crops	1 (5.6)
	Vinyl house	8 (44.4)
	Fruits	8 (44.4)
	Livestock	1 (5.6)
Treatment of work-related diseases of lifelong farmers	No	16 (88.9)
	Yes	2 (11.1)
Treatment of occupational accidents of lifelong farmers	No	16 (88.9)
	Yes	2 (11.1)
Treatment of work-related diseases of farmers in the past year	No	18 (100.0)
	Yes	0 (0.0)
Treatment of occupational accidents of farmers in the past year	No	17 (94.4)
	Yes	1 (5.6)

총 농사 기간은 20년 미만이 44.4%, 20년 이상이 55.6%였으며, 평균 농사 기간은 20.1년이였다. 주요 작물은 식용 작물(논벼)과 축산(가축) 5.6%, 시설하우스와 고수작물 44.4%이였다.

농사일로 인해 생기는 질병과 사고를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라고 할 때 지금까지 또는 최근 1년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사고)으로 인정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평생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치료 경험과 사고 치료 경험은 모두 11.1%이였고, 최근 1년간 농

업인의 업무상 질병 치료 경험은 없었고, 최근 1년간 업무상 사고 치료 경험은 5.6%이였다.

2. 농작업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예방 서비스 중 받은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는 농기계 안전 교육, 작목별 안전 교육 이수 또는 편이 장비를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잠시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 교육에 대한 자율적 참여보다는 연간 이수를 꼭 하도록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교육을 참여를 유도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작목반과 같이 자신의 농작업에 관련되는 예방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농기구 사용법과 농작업 시 유의 사항, 근골격계질환을 예방을 위한 편이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편이 장비로 작업 방식, 허리 보조기, 이동식 약기계, 농약 자동살포기, 파종기, 동력전지가위 등을 받았고 기관에서 장비를 주면서 사용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청에서 주민투을 통해 분기별로 진행되는 농기계 안전 교육 시행을 알리고는 있지만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은 주민투에 올라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농작업 안전 교육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농작업 분야별 전문적인 안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예방, 진단, 치료, 재활 분야 등) 질문에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얘기를 했지만, 실천하기가 우리나라 농작업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예방보다는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농작업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단, 치료 및 보상에 대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이나 운동 등 질병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을 준수하면서 농작업 하기에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진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안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농약 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작업 시 편의를 위해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아 교육의 효과가 낮을 것입니다. 교육보다는 농업인의 특성에 맞춰진 조기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진단과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병에 걸리면 진단에서 치료, 사후관리까지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해도 현재 고령의 농업인 호응을 얻기가 힘들어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 인근에 농작업 업무상 질병에 특화된 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와 재활 보상까지 진행될 수 있고 병원에서 농업인 관련 교육도 가능한 체계적인 전문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사업(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 예방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질환에 대한 심각성 인식 부족,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짐,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보호장비 착용,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차단제 사용 등)이 농작업과 이질적이라고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농산물의 가격이 저렴하여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작업 문화와 경제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할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면 귀찮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 대부분이 예방법을 잘 모르고 예방 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인들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한가해지는 기간이 다르므로 과수 작물 관련 교육은 과수 일이 끝났을 때, 하우스 작물 관련 교육은 하우스 일이 끝났을 때 교육 하는

방법으로 작목별로 교육 기간과 내용을 달리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작업 업무상 재해 예방사업을 할 때 농업인에게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참여 및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야기하였다.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참여자가 많을 것입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 참여나 운동수행을 체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강제성, 의무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고 사항인 교육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성, 의무성이 어렵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농업인들이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 교육의 주체로는 농업인 단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문 기관(농업안전보건센터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유로는 농업인에 대한 이해와 농작업 특성에 대한 이해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 단체들은 먼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고 과수, 하우스, 축산 등 특정 작목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농작업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업안전보건센터와 같이 농작업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면 이러한 기관이 교육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가장 우선하여 질병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농작업 관련 질환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는데 농작업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라 응답하였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입니다. 농작업에 주로 근육을 많이 사용하니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엉덩이, 허리, 무릎이 상하고 손목터널증후군이나 인대 파열도 많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생기는 알레르기나 풀독 등이 있습니다.”

“농약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눈 질환, 심장 질환, 신경계 질환, 암”

“우울증입니다. 농업 관련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시달리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아 자살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온의 공기와 먼지, 공기에 남아있는 농약 등을 장시간 흡입하게 되어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폐암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치료 시 보상보험제도의 연계의 당위성과 편리성을 응답하였다. 특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치료기간 농작업 인력과 휴업 급여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농업인 질환 치료 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럼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 휴업급여 지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못 짓는 기간 동안 인력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인력 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간도 짧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고 찰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예방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에 대한 요구도 많았으며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익적 요구 역시 높았다.

농업인들이 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 시 부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 부분에서 낮았다. 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을 질문하였을 때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가 먼 미래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 치료과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 지정과 농업인 안전 보험 보상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농작업 관련 질환의 경우 예방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농촌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속성(예방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질환에 대한 심각성 인식부족), 경제적 문제(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예방 활동이 쉽지 않다.

농업은 경영과 노동이 분리된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 가족 농장 농업인은 노동과 경영을 모두 대표한다. 농작업 질환 예방 활동은 항상 개별 농업인에게 경제적인 도전이다. 지속적 상승하는 생산비에 비해 농작물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생산자를 위한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11].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자는 감소해야 하며, 오래되고 종종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고, 무급 가족 노동에 의존하고, 안전 및 건강 응용 프로그램에 자원을 할당하지 않기로 선택한다[7,12,13]. 사회-경제적 지속 가

능성은 농업인에게도 관심사이므로 건강 및 안전 전문가는 직업적 건강 및 안전 위험 감소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인구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은 외부인의 간섭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14]. 특히 정부나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한 농업인은 규정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기타 비농업 단체가 생산성을 저해하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할 때 농업인의 강한 자부심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업윤리, 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공통 문화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15,16]. 대부분 다른 산업의 인력들도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특히나 농부들은 직업상의 부상과 질병의 위험을 직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이 종종 건강과 안전보다 농부와 목장주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7].

이번 연구에서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참여 및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얘기하였고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 교육의 주체로는 농업인 단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문 민간기관(농업 안전보건센터 등) 등을 언급하였다. 농업인 단체 대상 및 관련 농업인 활동 집단에서 사전 예방적 리더십, 자원 및 인센티브가 개발되고 더 많은 보건 및 안전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또는 효과적인 보건 및 안전의 확장은 불가능하므로 이것을 고려한 업무상 재해 예방사업이 해야 할 것이다. 보건 및 안전 전문가는 농업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존의 문화 및 경제적 매개변수 내에서 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질병 위험을 알고 있지만[18], 질병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인다 [19].

문화적 장벽 외에도 지리적 접근성 어려움은 예방 프로그램에서 농장/농민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만든다. 농촌은 대부분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예방, 관리 사업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

가장 우선하여 질병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농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질환, 농약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는데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라 응답하였다. 즉, 농업인들이 많은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각 농작업별로 유해 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 요인을 고려한 예방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인 안전 보험은 공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입 형태, 보상 내용 등에서는 사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 관점에서의 보상 내용을 보강하여 강제 가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단점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선택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농업인 관점에서 예방사업의 필요, 사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에서의 업무상 재해 특히 질환 예방과 관리의 국가적 난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가족 노동 특성, 예방사업에 대한 경제적 장벽의 해소, 농업 문화를 이해하는 농업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편지은.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2022.6.29. (Korean)
2.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2021. [cited 2022 Nov 07]. Available from: <http://index.go.kr/main.do?cate=1>

3. SB Koh. Work-related diseases and injury of Korean farmer: causes, epidemiology, and countermeasure. *J Korean Med Assoc* 2012 November; 55(11): 1044-1045
4. Fragar L. Policy issue. 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in Australia. *Aus J Rural Health*. 1996;4(3):200 - 6
5. Schenker MB. Preventive medicine and health promotion are overdue in the agricultural workplace. *J Public Health Policy*. 1996;17(3): 275 - 305
6. Jones P, Field W. Farm safety issues in Old Order Anabaptist communities: unique aspects and innovative intervention strategies. *J Agric Saf Health*. 2002;8(1):67 - 81
7. Arcury T.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knowledge and behavior of African American farmers. *Hum Organ*. 1997;56(2): 167 - 73
8. Krueger RA, Casey MA.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2008. p. 4-19
9. Rosenthal 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hy, when, and how to conduct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 pharmacy research. *Curr Pharm Teach Learn* 2016; 8(4): 509-516
10. Park SY, Kwon JS, Kim CI, Lee YN, Kim HK.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hypertension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 Community Nutr* 2012; 17(5): 623-636 (Korean)
11. Donham KJ, Mutel, CF. Agricultural medicine: The missing component of the rural health movement. *J Fam Prac*. 1982;14(3):511 - 20
12. Leigh JP, McCurdy SA, Schenker MB. Costs of occupational injuries in agriculture. *Public Health Rep*. 2001;116(3):235 - 48
13. Pana Cryan R, Myers ML. Cost effectiveness of roll over protective structures. *Am J Ind Med*. 2002;Suppl.2(2):68 - 71
14. Kelsey TW. The agrarian myth and policy responses to farm safety. *Am J Public Health*. 1994;84(7):1171 - 7
15. Loos C, Oldenburg B, O'Hara L. Planning of a community based approach to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in a rural community. *Aust J Rural Health*. 2001;9(5): 222 - 8
16. Moore E, McComas J. Acceptance of an injury prevention program in rural communities: a preliminary study. *Prehosp Disaster Med*. 1996;11(4):309 - 11
17. Palermo T, Ehlers J. Coalitions: partnerships to promote 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J Agric Saf Health*. 2002;8(2):161 - 74
18. Thu K, Donham KJ, Yoder D, Ogilvie L. The farm family perception of occupational health: a multistate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ideas. *Am J Ind Med*. 1990;18(4):427 - 31
19. Park J, Kwon SM, Oh YJ.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Problem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armers' Syndrome of Rural Residents. *J Agri Med & Community Health* 2009;34(1):47 - 57 (Korean)